

성격유형에 따른 원룸형 주거의 공간구성 및 가구 선호도에 관한 연구

이 중 희[†], 김 휘 경

서일대학교 실내디자인과

A Study on Space and Furniture Preference in One-room Type Residence Considering Personality Type

Jonghee Lee[†], Hwikyung Kim

Department of Interior Design, Seoil University, Seoul 02192, Korea

Abstract: Single-person household is estimated to be about 26.5% of the total household in 2015, which counts as 5060000 in numbers. We opt to acknowledge the various requests of these single residents, and in order to raise their satisfaction, we investigated on how personal taste, psychological interest, and personality attribute affects the user's preference of space organization and furniture in one room housing. Using the qualified psychology program, Enneagram Personality Type Indicator, we surveyed young people under 30 years old (majority of single-person households), regarding space organization and furniture preference. With the help of a specialist, the survey was constructed with appropriate evaluation items (space organization in one room households, bed, sofa, furniture material, etc), and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valuated items and personality types. Results showed there is a relationship between personality types and spatial structure. First, preference of spatial structure differed for different personality types. Second, the shape and size of furniture was dependent more on the ease of usability and design rather than on the personality types. One thing to consider is that type 1 and 9 accounted for about 50% of the total surveys. This emphasizes that the preferred spatial structure of a dominant specific personality type should not be overlooked.

Keywords: Household preference, Organization of space, Furniture preference, Enneagram Personality Type Indicator

1. 서 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최근 우리 사회에서 저출산과 혼인감소·이혼증가 등이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는 중요한 변화는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전통적 가족의 형태가 해체

되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과거의 가족중심에서 벗어나려는 신세대들의 독립현상이 강하게 대두되면서 학생, 직장인 등의 1인으로 구성되는 가족구성원의 형태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인구의 도시집중으로 인한 도시화와 핵가족화는 현대의 새로운 주거양식을 형성하게 되었다(조 2001). 그런 의미에서 원룸형 주거는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기 위한 대표적인 주거양식으로 대두되었으며, 현재는 도시 중심시설과의 접근성, 생활의 편리성 등의

2016년 6월 15일 접수; 2016년 7월 12일 수정; 2016년 7월 14일 게재확정

[†] 교신저자 : 이 중 희 (jhlee4482@naver.com)

외부적 요인을 제외하고서도 주거공간 자체로서의 실용성, 경제성 등이 부각되어 선호되고 있는 주거 형태이다.

특히, 이와 같은 1인가구의 증가와 그에 따른 주거방식의 변화는 단순히 가구구조의 변화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소비주체의 변화를 통해 주거시장은 물론, 산업전반에 걸친 변화를 이끌어 낼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원룸형 주거를 선호하는 다양한 계층의 특성과 생활방식을 바탕으로 소비재로서의 주거공간, 그에 따른 생활가구 및 집기 등도 점차 원룸형 주거에 맞는 다양한 접근 방식을 활용한 연구 및 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지금까지의 원룸형 주거는 주거입지, 주거 유형 등의 외적요인, 공간의 기능적 특성을 중심으로 연구와 개발이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획일적인 평면과 가구가 구성되는 안타까움이 있었다. 하지만 최근 생활수준의 향상 및 정보의 발전으로 거주자들은 주거공간을 통한 삶의 만족도에 대한 높은 관심과 이해도를 가지며, 점차 많은 사람들이 생활공간의 질적 향상을 추구하고 있다. 이처럼 주거공간에 개인의 개성과 취향을 표현하려는 세대가 늘어남으로써 앞으로는 원룸형 주거의 연구에 있어 소비계층의 대표적 특징에서 벗어나, 수요계층의 가치관이나 개인의 성향 및 성격, 행동양식 등의 내재적인 부분을 활용한 선호요인까지 초점을 맞추는 보다 세분화되고 고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

이때, 성격유형분석을 활용한 연구는 개인의 내재적인 특성을 통해서 같은 그룹에서 그 유형을 세부적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심리적, 행위적 특징들은 개인의 공간 및 가구의 사용방식 곧, 주거 생활방식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에니어그램 성격유형검사라는 도구를 활용하여 개인의 성격유형과 공간 및 가구 선호도 간의 상관관계를 밝혀 공간 및 가구 사용자연구 분석자료로 활용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연구결과의 적절한 활용을 통하여 공급자는 수요자에게 만족도 높은 공간을 제공할 수 있으며, 수요자는 자신에게 알맞은 공간을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받을 수 있다.

1.2. 연구 범위 및 방법

1.2.1. 조사 범위

연구의 장소적 범위는 수도권으로 한정하며, 일관성을 갖기 위하여 주거면적은 65 m² (19평) 이하, 형태는 단층으로 통일한다. 이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원룸형 주거유형에 일반적인 기준을 삼아 선정하였다.

내용적 범위는 크게 공간영역과 가구영역으로 구분되며 특히, 가구 영역에서는 개인구매로 개인 취향에 영향을 많이 받는 침대, 소파, 수납가구로 조사 범위를 한정하였다.

또한, 조사대상의 범위로 연령은 성별 구분 없이 생년월일이 1997. 1. 1~1986. 12. 31 (만 19~29세)로 한정한다. 이는 원룸형 주거 실거주자 중 가장 많은 연령대이며, 주거는 다른 공간에 비하여 개인적인 취향이나 선호도가 뚜렷이 드러나는 공간이므로 연구의 정확도를 위하여 위 연령대로 한정한다.

1.2.2. 조사 방법

조사방법은 서면을 통한 설문방식을 채택하였으며 시기는 2016년 3월 2일부터 3월 30까지 진행되었다. 조사는 총 2891부가 시행되었고 그중 1053부가 회수되었으며, 회수된 것 중 연구의 표본으로 적합한 자료는 800부이었다.

평가항목은 연구자가 원룸형 주거에 필요한 공간구성 및 침대와 소파 등 가구의 형태와 소재 등의 내용을 선행연구를 기초로 만들어 공간전문가 8명, 가구 전문가 7명에게 검증을 거쳐 정하였다. 평가항목의 내용은 공간영역과 가구영역으로 구분하였으며, 공간영역은 공간구성 방식과 공간 선호도, 가구 영역은 가구의 형태와 크기, 소재에 관한 선호도를 묻는 것으로 작성되었다.

성격유형에 따른 원룸형 주거공간 선호도를 분석하는 연구의 진행은 다음과 같다.

성별 구분 없이 수도권에 거주하는 30세 미만 청년들 1053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성격유형과 공간 및 가구의 선호도에 관한 상관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설문은 에니어그램 성격유형 검사와 공간 및 가구의 선호도를 묻는 두 종류로 진행한다.

Table 1. The Type of One-room type residence using Separation of Space

구분	유닛1	유닛2	유닛3
오픈형	침실 + 거실 + 주방	-	-
침실분리형	거실 + 주방	침실	-
주방분리형	침실 + 거실	주방	-
독립형	침실	주방	거실

먼저 회부된 1053부 중 유효한 결과지 800부를 연구표본으로 하여 전체적인 성격유형 분포와 공간 및 가구 선호도를 분석한다.

이후 연구 표본 800부에서 각 유형별로 20개의 표본을 선별하여 성격유형과 공간 및 가구 선호도에 관한 상관성을 분석하여 결과를 도출한다.

2. 이론적 고찰

2.1. 원룸형 주거의 유형 및 주생활특성

원룸형 주거란 각 실을 독립된 구획공간으로 하지 않고 욕실과 화장실만을 벽으로 막고 그 이외의 공간은 하나의 천정 밑에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되며 가구나 이동식 칸막이 또는 커튼 등으로 가장 기본적인 공간분할인 취침, 식사, 리빙, 서재, 출입구 등의 구분을 짓게 하는 형식을 의미한다. 이러한 주거양식은 주어진 공간을 최대한으로 넓게 사용하기 위해 여러 가지 기능을 하나로 집약시킨 생활공간의 구성방법으로 공간 활용성이 높고, 단위면적이 작아 동선이 편리하며, 건축비용을 절감시키는 장점을 가진다. 반면, 협소한 공간에서 오는 수납의 문제, 위생문제, 거주자의 질적인 주거생활이 떨어지는 등의 단점도 공존한다.

원룸형 주거는 처음에 독신자 및 저소득층 근로자를 위하여 공급되었지만, 현재는 학생, 혼자 생활하는 사회인, 신혼부부, 실버세대 등 극히 소단위의 가족이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계층을 위해 원룸형 주거가 공급되고 있다. 이는 사회의 급속한 발전과 가치관의 변화가 소규모의 생활공간을 필요로 하는 생활자가 많은 사회로 변화시키고 있음을 말해준다. 이와 같이 다양한 계층과 각각의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주거생활을 충족시키기 위해 최근 주거공간이 여러 형태로 나타나면서 원룸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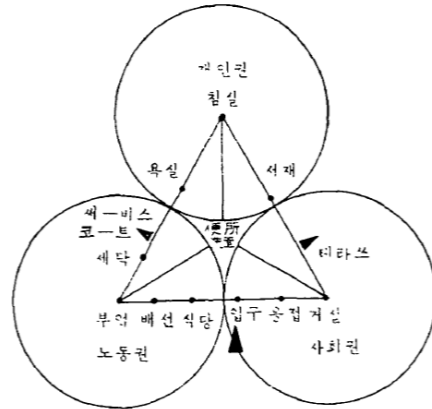


Fig. 1. Typical Zoning Planning (An 1963).

주거의 범주가 넓어졌으며, 기존의 일체형 스튜디오에서 벗어나 다양한 방식으로 확장되고 있다.

먼저, 원룸의 유형을 공간분리방법에 의해서 구분지어 볼 수 있다. 원룸의 개념인 침실(Room)을 기준으로 화장실을 제외한 모든 공간이 가장 일체화된 가장 흔한 형태의 원룸인 오픈형, 주방과 거실이 일체형으로 구성되며 침실이 독립된 침실분리형, 거실과 침실이 일체형으로 오픈되어 있고 주방이 독립되어 있는 주방 분리형, 침실, 주방, 거실이 모두 분리되어 있는 독립형 등의 유형이 있다(Table 1).

이렇게 원룸형 주거가 다양하게 구성되어 공급되는 이유는 계층, 지역, 성별, 소득수준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서도 나타나지만 주로 거주자가 주거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관한 사용자의 생활 방식과 관련이 깊다.

기존의 주거공간의 생활특성을 Zoning Planing (지대별 계획)에 따르면 주생활 공간은 개인권영역, 노동권영역, 사회권영역으로 크게 나뉘며, 침실, 부엌, 거실이라는 개별 공간을 중심으로 주생활기능이 분화됨을 알 수 있었다(안 1963). 이에 각 영역사이의 경계가 다소 명확하게 나타나 있음을 알 수 있다(Fig. 1).

하지만, 원룸형 주거공간에서는 위와 같은 기존 주거의 구성방식과는 달리 새로운 방식으로 조직도가 구성된다. 특히 생활기능으로 볼 때, 개별공간의 영역구분의 모호성, 단위 공간별 기능의 중복 및 생략 등 다양한 주생활의 기능이 복합되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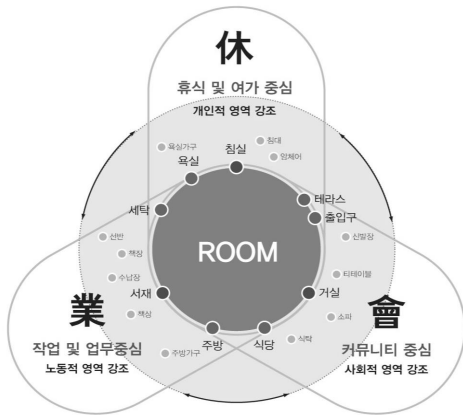


Fig. 2. Zoning Planning of One-room type residence (Reconstitution).

따라서, 원룸형 주거에서는 개인적·노동적·사회적 영역의 특성이 동시에 드러나면서도, 휴식 및 여가중심형·커뮤니티중심형·작업중심형 등으로 거주자가 추구하는 주생활방식을 강조하는 형식으로 공간을 구성하여 사용하는 특성을 보인다(Fig. 2).

2.2. 원룸형 주거와 가구

가구는 우리의 생활공간에서 실용성과 장식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어 작업, 휴식, 취침, 식사, 수납 등의 인간의 복잡한 생활기능을 만족시켜줄 뿐만 아니라 실내공간에 활력을 주는 요소로서 미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특히, 원룸에서의 가구는 한정된 공간 안에서 물리적 혹은 인식적으로 공간분할을 해주며, 공간에 성격을 부여해 주는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다.

원룸형 주거공간에서 기본적인 주거환경 유지를 위해 필요한 가구는 침대, 주방가구, 옷장, 수납 및 TV장, 책상, 신발장 등이다. 이들 중 주방가구는 건설사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 주는 불박이 가구이고 나머지 가구들은 거주자의 구매로 이어지는 가구들이다. 이러한 가구들은 원룸형 주거에서 실면적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게 되며, 협소한 공간 안에 거실과 침실 및 주방 등 모든 주거생활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원룸형 주거에서 가장 중요한 가구의 요소는 최소 공간 활용을 위한 불박이가구나, 가변적이고 이동이 용이한 모듈러 가구가 많이 활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수납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원룸 주거는 공간의 크기가 협소하며, 실내가 개방되어 있어 다양한 주택 내의 생활을 수용하기 위한 설비 및 생활 집기들의 노출에 따른 수납의 중요성이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기도 한다. 따라서 작은 공간에서 공간의 효율을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생활공간의 범위를 최대한 확보하는 선에서 수납의 계획과 구성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가구는 공간을 중심으로 서로 간의 관계가 거주자의 목적에 대해 적정한가의 여부가 쾌적성을 좌우하는 요인이 된다. 특히, 원룸형 주거의 공간적 제한과 거주자의 선호가구 사이의 타협점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구의 크기와 배치에서부터 형태, 색상, 소재 등 가구의 디자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거주자의 생활방식을 이해하고 계획하는 것이 중요하다.

2.3. 성격유형검사 - 에니어그램

2.3.1. 에니어그램의 정의

에니어그램은 인간의 성격을 9가지로 설명하는 일종의 성격 유형론으로 인간의 감정이나 행동의 원천이 되는 본질을 찾아내는 인간학이다. 그 유래를 살펴보면 에니어그램은 러시아 구지예프(Gurdjieff)에 의해 1세기 전에 서구에 전해졌고, 그 뒤 1960년대 볼리비아 이하쵸(Ichazo)에 의해 개발되기 시작하여 1970년경에 미국으로 확산되었다. 이들에 의하면 에니어그램은 이슬람교도 남선교회인 수피(Sufis)의 스승들을 통하여 구두로 전해져 왔다고 한다.

에니어그램(Enneagram)은 그리스어 en-nea라는 말로 “9 (아홉)”을 뜻하고, gram은 “쓰다”의 뜻을 가진 “graphean”에서 나왔다. 따라서 에니어그램은 9모형 또는 9도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도형은 우주의 법칙과 인간 내면의 모든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인간이 도달하고 싶은 이상향을 표현하는 원은 9가지 특별한 성격들의 상호 연결성을 보여주는 상징이다(Fig. 3).

전문가들은 이러한 에니어그램의 도형과의 관계성을 다양하게 활용 및 해석하여 성격형성과 행동의 동기를 알 수 있다 하며, 일부 전문가들은 인간의 삶 뿐만 아니라 진행하고 변화하는 우주의 모든 과정을 에니어그램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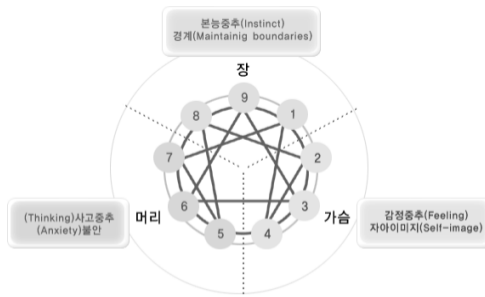


Fig. 3. The Diagram of Enneagram Characteristics type (Enneagram Research Institute of Korea).

2.3.2. 에니어그램 9가지 성격유형

에니어그램은 9가지 성격유형을 구분하는데 있어 3가지 힘의 중심으로 세분하여 설명한다. 이때 힘의 중심이란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 에너지를 얻는 원천을 말한다. 에니어그램의 세 가지 힘의 중심은 머리, 가슴, 장의 세 가지 신체 기관과 관계가 있다. 삶의 문제나 선택의 순간에 직면했을 때 머리 중심은 사고에, 가슴 중심은 감정에, 장 중심은 본능에 의존하여 그 기능을 주로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장 중심의 사람들은 장, 즉 배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통해 세상을 보고 해석하는 사람들이다. 배는 본능과 관계가 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먼저 몸으로 부딪히는 행동파들이다. 몸의 반응이나 본능적인 느낌에 따라 즉각적으로 행동한다. 이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힘을 행사할 수 있을 때 존중받는다고 느낀다.

가슴 중심의 사람들은 가슴의 에너지를 통해 사물을 받아들이고 인식한다. 사람들에게 따뜻한 이미지를 주며 미소를 잘 짓는다. 자신의 이미지에 관심이 많아서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에 신경을 많이 쓰고 주변의 평가나 의견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또한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려고 하며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려고 한다. 그러므로 결정을 내릴 때도 인간관계를 중요시 여긴다.

머리 중심의 사람들은 머리에서 힘이 나오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사고의 기능을 사용하여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한다. 사고의 기능은 비교하고 분석하는 것이다. 머리 중심의 사람들은 정보를 수집하고 분류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을 좋아한다. 자신의 머

Table 2. Characteristics by Enneagram personality type

유형	본질과 자아	성격특성과 인지양식
1	본질 완벽 평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칙적이고 자기통제적인 모범적 • 질서정연한 계획 • 일관성 유지
	자아 시비 분노	
2	본질 의지 겸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우 관계 관심 조화 • 잘 듣고 친절하며 소유욕 강함.
	자아 아침 자만	
3	본질 법칙 진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응력과 추진력있는 이미지중시 • 성공 가능한 상황 선호 •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어 함.
	자아 성공 기반	
4	본질 근원 평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밀한 관찰보다 통찰에 의지 • 실제적 사실보다 주관적 해석 • 표현력과 낭만적 감정기복 성격
	자아 특별 우울	
5	본질 지식 무집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각적이고 지적인 성격 • 객관적 진리, 논리적 원리에 충실 • 냉정함 결정력
	자아 인색 탐욕	
6	본질 신념 용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칙이나 안정적 구조 선호 • 경계하고 의심하는 조심성 • 헌신적, 책임감 있고 불안감 성격
	자아 안전 소심	
7	본질 지혜 절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발적 다재다능, 산만함, 분주함 • 긍정적 사고방식 • 관심사가 자주 바뀌고 호기심 많음.
	자아 재미 탐닉	
8	본질 진리 순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리와 정의 추구 • 명확한 경계 설정 • 자신감과 결단력있고 고집스러움.
	자아 복수 욕망	
9	본질 사랑 행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용적이며 안주하는 성격 • 조화롭고 평화로운 상황 추구
	자아 평화 나태	

릿속에서 생각할 시간과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람들과 떨어져 있으려고 한다. 사람들이 자신의 공간을 허용해 주며 지나치게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꺼려한다. 대화를 할 때에도 논리적인 근거나 자료를 인용하기를 좋아하고 객관적인 사실을 중시한다.

에니어그램은 이와 같은 분류를 통해 사람의 성격유형을 3가지 중추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다. 이를 크게 다시 정리하면 감정 중추는 2, 3, 4유형, 사고중추는 5, 6, 7유형, 의지 중추는 8, 9, 1유형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3가지 중추를 활용할 수 있지만 주로 어느 한쪽에 머물러 있을 때 편안함을 느낀다. 이것을 성격유형으로 구분한다.

2.3.3. 9가지 성격유형별 특성

9유형의 성격특성과 인지양식을 타고난 본질과 환경 속에서 형성된 자아를 통하여 알아보고 그 내용을 정리하였다(Table 2)(김 2013). 인간의 본질은 나 자신의 의지나 노력과는 상관없이 결정되어 있

Table 3. Ranked research by Enneagram personality

순위	인원(명)	비율(%)	성격유형
1	203	25.4	1
2	144	18	9
3	113	14.1	6
4	90	11.3	2
5	75	9.4	4
6	64	8	7
7	59	7.4	8
8	32	4	5
9	20	2.5	3
계	800	100	-

다는 운명적 인간관을 의미하며, 자아는 삶의 세계 속에서 형성적, 통전적, 실존적 존재로서 사람들이 삶의 객관화된 표현인 문화와 더불어 자신의 존재와 삶의 의미를 추구하고 터득하고 실현해 나가는 인간의 의도적인 인간형성의 실현과정을 통하여 완성되어진다. 이를 최대한 발휘함으로써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인 행복에 이를 수 있는 것이다.

3. 결과 및 고찰

3.1. 검사대상자의 성격유형 분포도

유효한 표본 800명의 성격유형 분포도의 전체적인 순위는 본능중심의 장유형, 감정중심의 가슴유형, 사고중심의 머리유형 순으로 분석되었다. 그중 1, 9유형이 347명으로 대략 43%를 넘는 분포를 보였으며, 감정중심의 가슴형 중 성취자 타입의 3유형이 20명으로 가장 낮은 순위를 차지하였다.

3.2. 성격유형별 공간구성에 관한 선호도

조사 대상자들이 가장 흥미로워한 공간 구조 조사 결과는 침실이 독립되고 거실과 주방이 개방된 침실분리형의 선호도가 45.5%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침실과 거실, 주방 모두 개방되는 오픈형이 28.8%이었다. 반면, 침실과 거실, 주방 모두 독립되는 독립형이 20.5%이었고 주방이 독립되고 침실과 거실이 개방되는 주방분리형이 5%로 가장 낮은 선호도를 보였다.

공간구조는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의 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각각의 성격유형도 잘 드러남을 알 수 있었다. 침실분리형 구조는 아홉 가지 성격유형의 사람들로부터 고르게 지지를 받았는데 특히 2, 3, 4유형의 선호가 가장 높았다. 또한 5, 6유형이 이 구조를 선호하였다. 이유는 5, 6유형의 경우 타인이 예고 없이 자신의 공간에 들어서는 데에 대한 거부감을 느끼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들은 사적인 공간일 경우 타인과 공유하는 것은 꺼려진다고 한다. 이러한 성격유형을 가진 사람들에게 혼자만의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침실공간의 개방은 오히려 스트레스 상황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들 중의 일부가 독립형 공간에 일정한 선호를 드러낸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는 다르게 일 중심의 사고를 하는 1, 8유형의 경우 오히려 독립형 구조를 선택을 하였다. 이는 휴식을 취할 때와 작업을 할 때, 또 혼자 있을 때와 둘 이상의 사람들이 함께 있을 때를 분명하게 구분하는 성격유형의 특성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또한 3유형의 경우에도 선택자가 많았는데, 이는 공간의 효율성을 중시하고 남에게 보여 지는 것을 신경 쓰는 그들의 성격특성이 반영된 것이다. 이처럼 성격유형과 공간 구조 선호 간에는 분명한 인과성이 드러나고 있다(Table 4).

주생활 공간을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조사 결과는 대략 커뮤니티를 위한 사회적 영역 40%, 휴식 및 여가를 위한 개인적 영역 37%, 작업을 위한 노동적 영역 22% 순으로 나타났다. 휴식 및 여가와 커뮤니티에 대한 공간의 사용 요구가 작업을 선택한 경우보다 월등히 높은 것을 보아 조사 대상자들은 주생활 공간을 소통 및 쉽거나 여가를 위한 공간으로 사용하고자 하였다.

주생활 공간을 사회적 영역으로 선택한 주 유형은 감정형인 2, 3, 4유형이었다. 열정가 타입의 7유형과 화합과 어울림을 선호하는 9유형도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이 타입을 선호하는 성격유형 중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인 2유형은 타인과 어울리며 소통하길 좋아하는 성격적 특성을 반영하여 주생활 공간을 커뮤니티를 위한 공간으로 만들고자

Table 4. Space division preference in one-room type residence

유형	오픈형	침실분리형	주방분리형	독립형	계(명/%)
1	3	9	-	8	20
2	6	12	-	2	20
3	2	11	-	7	20
4	5	13	-	2	20
5	4	8	4	4	20
6	5	9	1	5	20
7	13	7	-	-	20
8	-	7	4	9	20
9	14	6	-	-	20
계(명/%)	52/28.8	82/45.5	9/5	37/20.5	180/100

Table 5. Space character Preference in housing life

유형	개인적 영역(휴식 및 여가)	노동적 영역(작업)	사회적 영역(커뮤니티)	계(명/%)
1	15	2	3	20
2	3	1	16	20
3	7	1	12	20
4	14	2	4	20
5	3	14	3	20
6	5	15	-	20
7	4	1	15	20
8	10	4	6	20
9	6	1	13	20
계(명/%)	67/37.2	41/22.7	72/40	180/100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유형 역시 쾌활한 성격으로 주변 사람들을 즐겁게 해 주며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에너지를 얻는 그들만의 특성을 반영하였다. 휴식 및 여가를 위한 개인적 영역을 선택한 성격유형을 살펴보면 1, 4유형이 제일 많았다. 이 성격 유형의 사람들은 자신만의 공간에서 남에게 방해받지 않고 편안한 삶을 누리겠다는 욕구를 강하게 드러내 보였다.

작업위주의 노동적 영역을 선호하는 부류는 사고 중심의 5, 6유형이 대체적으로 많았다. 말수가 적고 관심사에 관한 지적인 토론은 즐기지만 타인과의 소통을 중요시 하지 않는 이들은 주생활 공간마저도 탐구하고 지식과 정보를 수집하는 공간으로 인식함으로써 주생활 공간을 작업공간처럼 활용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

를 종합해 보면 주생활 공간의 선호에 있어 성격 유형이 대단히 유의미함을 알 수 있다(Table 5).

3.3. 성격유형별 가구구성에 관한 선호도

침대의 유형 선호도 조사에 의하면 조사 대상자들은 접이식 침대유형을 가장 선호하였다. 그 다음으로 일반 침대유형, 소파 겸용 침대유형 순이었다. 접이식이나 소파 겸용 침대를 선택한 사유를 보면 침대가 차지하는 공간을 다용도로 활용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 휴식을 취하거나 수면 시에는 침대로 활용하지만 그렇지 않고 일상의 활동을 할 경우에는 그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코자 하는 의견을 드러내었다. 그렇지만 일반 침대 유형에 대한 선호도 있어 수면공간에 대한 욕구도 뚜렷함을 보여 주었다.

Table 6. Preference of bed type

유형	일반침대	소파겸용 침대	접이식 침대	필요없다	계(명/%)
1	5	1	14	-	20
2	3	10	7	-	20
3	-	11	9	-	20
4	4	10	6	-	20
5	13	1	6	-	20
6	12	3	5	-	20
7	10	3	7	-	20
8	7	2	11	-	20
9	6	2	12	-	20
계(명/%)	60/33.3	43/23.8	77/42.7	-	180/100

Table 7. Preference of bed size

유형	싱글사이즈	슈퍼싱글사이즈	더블사이즈	퀸사이즈	계(명/%)
	(1000 × 2000)	(1150 × 2000)	(1350 × 2000)	(1500 × 2000)	
1	3	10	7	-	20
2	9	11	-	-	20
3	13	7	-	-	
4	9	10	1	-	
5	12	7	1	-	
6	10	9	1	-	
7	7	10	3	-	
8	1	11	8	-	
9	4	15	1	-	
계(명/%)	68/37.7	90/50	22/12.2	-	180/100

조사 대상자들의 수면에 대한 욕구는 침대가 공간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가구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드러났지만 그 침대의 유형을 선택함에 있어 드러나는 선호도는 성격유형과 뚜렷한 연관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같은 에너지원으로 분류되는 2, 3, 4유형은 선호가 소파겸용 침대였다. 이는 가변적 변화를 좋아하는 성격적 특성이 반영된 것이다. 특히, 효율성을 중시하는 3번 유형의 경우 소파나 접이식 침대 형태에 대한 선호를 분명하게 드러내었다.

반면에 5, 6, 7유형은 일반 침대 유형을 선호하였다. 이들은 성격상 일정한 틀과 질서가 존재하는 환경을 만들려고 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따라서 침실 공간엔 침대가 존재해야 마음에 안정감을 갖는다.

이와는 달리 1, 8, 9유형은 접이식 침대를 선호

하였는데 그 이유는 자신들의 공간이 기능적으로 구분되어 있어 정리정돈하기 좋고, 누가 불시에 방문하더라도 깔끔하게 보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성격이 반영된 것이다(Table 6).

침대 크기 선호도 조사에 있어서는 조사 대상자들의 대부분이 방의 크기에 따른 선택을 하였다. 연구자가 이미 제시한 방의 크기가 있었기 때문에 혼자 사용하는 침대크기를 선호하였고 성격유형과는 상관없이 대부분의 답변이 특정 크기(1, 2번)에 집중되었다(Table 7).

소파의 크기 선호에 있어서는 2, 3, 4유형의 경우 1인용 소파보다는 2, 3인용에 대한 선호가 뚜렷하였다. 특히 답변자 대부분이 3인용 소파에 대한 선호를 드러낸 2유형의 경우 성격특성과 소파크기 선호도와의 밀접한 관계성이 있다. 7, 9유형의 경

Table 8. Preference of sofa size

유형	1인용	2인용	3인용	계(명/%)
1	13	3	4	20
2	-	2	18	20
3	2	11	7	20
4	1	10	9	20
5	6	7	7	20
6	5	8	7	20
7	2	8	10	20
8	12	3	5	20
9	4	7	9	20
계(명/%)	45/25	59/32.7	76/42.2	180/100

Table 9. Material Preference of sofa

유형	우드	패브릭	가죽	철재	계(명/%)
1	5	1	5	9	20
2	8	9	3	-	20
3	10	8	1	1	20
4	9	10	1	-	20
5	4	1	12	3	20
6	3	4	11	2	20
7	8	7	5	-	20
8	6	2	4	8	20
9	9	6	3	2	20
계(명/%)	62/34.4	48/26.6	45/25	25/13.8	180/100

우에도 2, 3인용 소파에 대한 뚜렷한 선호를 보여 주었다. 반면 1, 8유형은 1인용을 주로 선택하였다. 그러나 조사 대상자들 대부분이 개인의 사적인 공간에서도 소파의 크기는 주로 2~3인용을 선택 함으로써 어울림에 대한 욕구가 공통적으로 존재 함을 보여 주었다(Table 8).

소파 소재를 선택함에 있어서는 우드와 패브릭 같은 따뜻한 감성을 전달하는 소재에 대해 감정 중심의 2, 3, 4유형 선호도가 뚜렷하게 나타났고, 반면 일에서 에너지를 얻는 5, 6, 7유형은 가죽과 같은 소재, 단순하며 관리가 용이하고 정돈된 느낌을 주는 소재를 선호하였다. 소파의 크기 선호 조사에 나타난 것처럼 에너지 중추는 달라도 공감과 배려를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7, 9유형의 경우에도 우드와 패브릭 소재를 선택하는 비율이 높았다. 예를 들면, 같은 에너지 중추를 사용하는 5, 6, 7유형의 경

우 5, 6유형은 가죽 소재에 대한 선호도가 분명하였지만 7유형의 경우 가죽 소재보다는 우드와 패브릭 소재를 선택하는 답변자들도 많았다. 이는 같은 에너지 중추를 사용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들의 선택이 획일적이지 않고 각각의 성격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방증하는 사례라고도 볼 수 있다.

또한 1, 8유형자 중 일부가 다른 성격 유형들은 거의 선택하지 않은 철재 소재에 선호를 보였는데 선택 이유를 보면 질서와 완벽을 좋아하는 성격상 다소 차가운 느낌을 주지만 단순 명료하며 각이 잡혀 있고 기능적으로 뛰어난 철재 소재가 마음에 들기 때문이라고 한다. 소파 소재의 선택에 있어서 다양성을 보여주는 이와 같은 결과는 각 성격유형상의 동질성을 더욱 더 분명하게 드러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Table 9).

Table 10. Preference of Furniture type for storage

유형	오픈형	반 오픈형	폐쇄형	계(명/%)
	선반 구조	선반+문 구조	문 구조	
1	1	6	13	20
2	8	12	-	20
3	4	5	11	20
4	8	11	1	20
5	8	9	3	20
6	6	10	4	20
7	17	3	-	20
8	9	8	3	20
9	10	10	-	20
계(명/%)	71/39.4	74/41.1	35/19.4	180/100

Table 11. Comparison of most preferred factor depending on personality type

유형	공간적 요소			가구적 요소			
	공간구성	공간성격	침대유형	침대크기	소파크기	소파소재	수납가구
1	오픈형	휴식/여가	접이식	수퍼싱글	1인용	철재	폐쇄형
2	침실분리형	커뮤니티	소파겸용	수퍼싱글	3인용	패브릭	반오픈형
3	침실분리형	커뮤니티	소파겸용	싱글	2인용	우드	폐쇄형
4	침실분리형	휴식/여가	소파겸용	수퍼싱글	2인용	패브릭	반오픈형
5	침실분리형	업무/작업	일반침대	싱글	2,3인용	가죽	반오픈형
6	침실분리형	업무/작업	일반침대	싱글	2인용	가죽	반오픈형
7	오픈형	커뮤니티	일반침대	수퍼싱글	3인용	우드	오픈형
8	독립형	휴식/여가	접이식	수퍼싱글	1인용	철재	오픈형
9	오픈형	커뮤니티	접이식	수퍼싱글	3인용	우드	오픈/반오픈

수납가구(거실 장, 옷장, 책장, 주방 가구)의 문 구조 선호도 조사에 의하면 선반과 문을 병행한 형태인 반 오픈형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전체가 선반으로만 구성된 오픈형이 다음 순이었으며, 전체가 문으로 닫힌 구조인 폐쇄형이 가장 낮은 선호도를 보였다. 성격유형의 구분으로는 반 오픈형의 경우 2, 4유형이 우선순위를 보였고, 5, 6유형과 9유형이 다음 선호도를 나타냈다. 오픈형의 경우 7유형의 선호도가 높았고 2, 9유형도 많았다. 폐쇄형의 경우 3유형과 1유형에서 선호도가 높았다.

전체적인 통계를 보면 성격유형에 따라 어느 한 쪽에 편중되기보다 오픈형이나 반 오픈형에 전체

적인 지지가 골고루 분포되었다. 따라서 수납가구의 형태 선호는 성격유형보다는 사용상의 편의성과 디자인적 요소에 중점을 두는 답변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Table 10).

3.4. 종합분석

위 선호도조사 결과를 공간적요소, 가구적요소로 구분하여 각 유형별로 가장 선호하는 요소들을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었다. 이를 볼 때, 성격유형별로 그 항목과 기준의 내용에 따라 선호하는 유형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Table 11).

4. 결 론

1인가구의 증가에 의한 원룸형 주거 공간 구성 및 가구 디자인에 대한 다양성을 도출하고자 진행된 본 연구는 실 거주자의 에니어그램 성격 유형과 선호하는 공간 구성 및 가구의 형태와 소재 등에는 다음과 같은 유의미한 특성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간적 영역인 원룸형 주거 구조와 주생활 공간 선호도 조사에 있어서는 개인의 성격유형과 분명한 연관성이 있음이 드러났다. 따라서 원룸형 주거 공간 계획 시 레이아웃은 실 사용자의 성격유형을 고려한 계획이 필요하다.

둘째, 가구의 형태나 크기, 즉 수납가구의 형태나 침대 및 소파의 크기에 있어서는 성격유형보다는 사용상의 편의성과 디자인적 요소에 중점을 두는 선택을 하였다. 그에 비하여 침대 유형이나 소파의 소재에 있어서는 성격유형과 분명한 연관이 있는 답변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결과에 의하면 가구의 경우 침대와 소파의 타입은 성격유형을 고려한 선택이 필요하며, 수납가구의 형태와 침대 및 소파 크기의 경우는 성격유형 보다는 개인의 디자인적 취향을 먼저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성격유형의 분석결과 1, 9유형이 전체 수의 50% 가량을 차지하는 쏠림현상이 도출되었다. 따라서 원룸형 공간구조 및 가구 디자인의 결정에 있어서 각 유형의 선호도에 대한 결과도 중요하지만 이 두 유형의 선호도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상의 연구를 통해 성격유형과 원룸형 주거구조 및 가구의 소재, 형태가 서로 상관성이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성격유형과의 연관성만을 주장하기에는 모호한 항목도 있었다. 이는 선택과 선호의 문제에 있어 인간의 성격이 그만큼 심층적이고 9가지 성격유형론에 모두 답을 수 없는 복합적인 마음의 작용들이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다만 연구자는 개개인의 성격유형에 따라 선호하는 공간 구조와 가구 디자인이 있음을 밝힘으로써 어떤 공간에서든 공급자가 경제적 논리를 넘어 수요자의 선호가 최우선적인 가치가 되기를 소망하며, 후속연구로 MBTI, 에고그램 등 여타 성격유형검사와의 비교 및 복합구성연구, 색상 및 사용방식 등 다양한 세부적 사항에 대한 개별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더불어 성별, 연령별, 직업별, 거주 지역별로 성격유형과 공간 및 가구의 선호도 상관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사 사

본 논문은 2016년도 서일대학교 학술연구비에 의해 연구되었음.

참 고 문 헌

- 강무진. 1986. 주거공간의 가구활용에 관한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46-47쪽.
- 김국선. 2013. 어린이 성격유형별 학습능력향상을 위한 공간디자인 구축 방안. 한국가구학회 24(1): 42-50.
- 김명태, 김준희. 2011. 원룸형 주거공간을위한 가변적 Wall Storage System 가구디자인 연구. 한국가구학회 22(1): 1-12.
- 박홍. 1976. 실내 디자인 계획 분석집. 형제사. 13쪽.
- 안영배. 1963. 새로운 주택. 보진재. 210쪽.
- 윤운성. 1999. 에니어그램 성격유형론 탐구.교육연구 15: 98-99.
- 윤운성 외. 2003. 에니어그램: 이해와 적용. 학지사. 75-143쪽.
- 이종희. 2003. 아파트 실내 이미지 선호와 성격유형과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디자인학연구 16(1): 229-240.
- 이현주, 박수빈. 2013. 사용자 성격유형에 따른 주거공간 실내디자인 요구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22(6): 88-87.
- www.kenne-agram.com (한국에니어그램연구소).